

# 새시대의 직장인상



安秉燧(순천대학교수)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것이 인생의 제1의 명제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인생의 제2의 명제다. 일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고 직업처럼 소중한 가치가 없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사도바울은 갈파했다.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이라고 중국의 백장선사(百丈禪使)는 말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겠다는 것이다.

직업은 생활의 등뼈요, 인생의大本(大本)이다. 직업은 인간의 가장 기축적(基軸的)인 가치다. 직업은 인생에서 세가지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첫째는 경제적 의미다. 직업은 생계유지(生計維持)의 기본수단이다. 직업은 인생의 발벌이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밥을 벌어야 한다. 무위도식(無爲徒食)은 인간의 가장 큰 치욕이다. 우리는 저마다 경제적

자활능력(自活能力)을 갖추어야 한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농업을 하고 상업에 종사하고 공업을 한다. 직업은 생활을 위한 업이다. 그러므로 생업(生業)이라고 한다.

둘째는 사회적 의미다. 직업은 사회적 역할의 수행이다. 「세계는 무대요, 인생은 배우」라고 문호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우리는 사회라는 커다란 무대에서 각자 직업이라는 역할을 담당한다. 직업은 사람으로서의 근본이요 도리요 구실을 다하는 것이다.

**직업**에 대하여 본분의식과 책임의식을 느끼는 것이 직분이요 직책이다. 사람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구실과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일한다.

세째는 정신적 의미다. 직업은 인생의 천직(天職)이다. 천직이란 무엇이나, 하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요, 직분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의 직업에 정성과 정열을 쏟는 것이 천직적 직업관이다. 이것이 가장 높은 차원이다. 자기의 직업을 천직으로 알고 심혈을 기울이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천직을 영어로 Calling, 독어로 Beruf라고 일컫는다. 모두 「부른다」는 뜻이다. 왜냐. 직업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나에게 맡기는 사명이요 직책이라 직업은 신성하다. 그러므로 성직(聖職)이라고 한다.

소명감(召命感)과 천직의식을 지니고 자기의 직업에 정성을 다하는 태도와 자세,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직업관이다. 우리는 자기의 직업에 대하여 세 가지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첫째는 애정을 갖는 것이다. 네 직업을 사랑하여라. 이것은 직업에 대한 첫째의 계명이다. 자기의 직업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둘째는 긍지를 느끼는 것이다. 자기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자기 직업에 긍지와 자랑을 느끼려면 열(熱)과 성(誠)을 다해야 한다.

세째는 충성심(忠誠心)을 갖는 것이다. 네가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해야 한다. 자기가 맡은 직책을 책임껏 능력껏 정성껏 해야 한다. 자기의 직업에 대하여 애정과 긍지와 충성의 태도를 갖는것, 이것이 곧 직업애(職業愛)다. 우정, 부부애, 진리애, 민족애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직업애다. 우리는 자기의 직업을 천직으로 삼고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일을 통해서 자기의 천분과 개성을 발휘하고, 일로써 사회에 공헌해야 한다. 직업애와 천직사상을 가져라. 이것이 가장 높은 직업윤리다.